

# ‘시키-’의 통사와 의미에 대하여\*

서종학\*\*

|| 차례 ||

- I. 서론
- II. ‘시키-’ 구문의 구조
- III. ‘시키-’의 의미
- IV. 결론

## 【국문초록】

현대의 여러 글에는 ‘시키-’를 동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접미사 ‘-하-’의 자리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의 사전과 여러 글을 검토하여 ‘시키-’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structure)를 분석하고 그 의미(meaning)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 결과 ‘시키-’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사 ‘시키-’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였고 그 의미도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접미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하-’의 오용으로 해석하거나 문법화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도 앞의 어근에 따라 의미가 다름을 구명하였다.

이런 결과는, 비록 한 어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전을 편찬할 때에 동음이의어로 보고 별개의 표제어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의어로 보고 한 표제어 속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한편, 하나의 어휘가 문법요소(grammatical element)로 변하는 과정이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의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시키-’, 구조, 의미, 문법화, 사전 편찬

\* 이 연구는 2008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08).

그리고 2010년 7월 8일 Mongolia의 University of the Humanities at Ulaanbataar City에서 열린 국제한국언어학회(ICKL)에서 발표한 것을 대폭 수정한 것임.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I. 서론

언어는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진다. 그 역동성은 언어의 모든 면 즉, 음운적 측면과 통사적 측면 그리고 의미적 측면 등에서 관찰된다. 이 가운데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어휘 형태소가 문법 형태소로 그 기능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를 흔히 文法化(grammaticalization)라 하는데, 많은 형태소들이 이런 문법화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런 문법화의 과정을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한 형태소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로 전이되는 경우 중에서 대체로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한국어의 ‘시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1. 가) 학교에서 학생을 제적시켰다.
- 나) 나라에서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1가-나)의 예문 중 ‘제적시키다, 강화시키다’는 현재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인바, 이들은 각각 국어사전에 등재된 ‘제적하다, 강화하다’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적하다, 강화하다’라고 할 것을 ‘제적시키다, 강화시키다’로 잘못 사용한 것으로 설명될 것들이다.

‘시키-’를 잘못 사용한 이러한 예에 대해서, 일찍이 최현배(1937:415-418)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2. 가) 세상에는 흔히 ‘시키다(시기다)’를 그릇 쓰는 수가 있나니, 그는 ‘하다’로 녀넉한 것을 공연히 ‘시키다’로 하는 것이다.
- 나) 김 아무가 민중을 선동시켜서 ……
- 다) 술이란 것은 신경을 자극시킨다.

1930년대에 (2나·다)의 예를 들면서 (2가)와 같이 '시키-'를 잘못 사용한 문제를 이미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규범 문법의 면에서 보면 오용이 될 것인데, 반면에 언어의 변화란 측면에서 보면 문법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命'이란 의미를 가진<sup>1)</sup>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 자료의 '시키-'(>시키-)는 다음 (3)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 NP를 요구하고 있다.

- 3. 가) 阿難일 시기사 羅睺羅의 머리 갖기시니(석상6:10)
- 나) 이리나 시기쇼셔(月釋(10:13)
- 다) 황태를 시기라 혼더(明聖31)

(3)에서 보듯이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시키-'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NP1이 NP2를 (NP3를) 시키-'의 구조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음 예문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한국어의 '시키-'는 이와 다른 점이 있다.

- 4. 가) 선생님은 지각한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셨다.
- 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편하게 모시도록 시켰다.
- 다) 그는 부하들에게 집 주변을 빈틈없이 수색하라고 시켰다.
- 라) 어머니는 중국집에 자장면 두 그릇을 시키셨다.

우선 'NP1이 NP2를 (NP3를) 시키-'의 구조 외에 'NP1이 NP2(를, 에 게) V-{-도록, -라고} 시키-'란 구조가 더 발견되며, 또 (4라)와 같이 '주문하다'란 의미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1) '시키-'의 의미는 다음 예에서 짐작할 수 있다.  
 命은 시기논 마리라(月序11), 시길 命(類合下2)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중세국어의 ‘시기-’에서 근대국어를 거쳐 현대국어의 ‘시키-’까지 그 의미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둔다.<sup>2)</sup> 그 과정 중의 하나로서 여기서는 현대한국어 ‘시키-’의 의미와 용법이 다양함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한다. 즉, 현대한국어에서 ‘시키-’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와 그 의미를 공시적인 방법으로 밝혀려는 것이다.<sup>3)</sup>

본고에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사전들에 실린 예문과 현대한국어의 말뭉치에서 발췌한 예문을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고 정리한다.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을 비롯하여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 『새우리말큰사전』(신기철·신용철 1986), 『한국어대사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한국어사전』(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북한의 『조선말사전』(언어문학연구소 1960), 『조선말대사전』(언어연구소 1992)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구성은 먼저 ‘시키-’의 문장 구조를 검토한 후, 그 의미를 분석하는 절차를 밟는다. 기술하는 방법은 인용된 각 예문의 문장 구조를 밝히고, ‘시키-’의 통사 제약 유무, 의미 대체, 변형 등을 통해 각각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현대한국어 ‘시키-’와 관련된 연구로 허철구(1998)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키-’의 造語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고 허철구(2000)도 공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차자 ‘슴-’가 국어의 어떤

2) 더 근본적인 관심은 중세국어의 ‘시기-’, ‘히-’(또는 ‘히어-’), ‘-게 히-’ 간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고 이는 문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稿를 달리 하여 고찰하려 한다.

3) 이런 고찰을 통하여 현대한국어의 ‘시키-’가 중세한국어 또는 근대한국어의 ‘시기-’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밝힐 수 있게 된다. 또 (1)에서 본 ‘제적시키다’의 ‘시키-’가 현대한국어 시기 내에서 문법화 과정에 있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단어를 표기한 것인지를 통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종학(2004)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슴-’에 대한 형태론적, 통사론적 접근을 통해 그것이 중세 국어 ‘시키-’가 아닌 ‘흐이-’에 해당하는 형태의 차자 표기임을 밝혔다.柴公也(1992)는 ‘시키다’와 그에 선행하는 한자어와의 관련성을 논의한 논문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어휘 ‘시키-’에 대해 통사와 의미를 분석한 업적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II. ‘시키-’ 구문의 구조

‘시키-’의 통사 현상은 다음 과정을 거쳐서 고찰한다. 먼저 국립국어연구원(1999)을 비롯한 여러 사전의 풀이를 찾아 이를 검증하고 그 예들이 가지는 통사 구조를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어의 동사 구문을 분석하고 정리한 사전인 홍재성외(1996)의 예문과 풀이를 분석하여 앞의 고찰을 보완하는 한편 앞의 논의에서 제외된 예를 현대 말뭉치에서 찾아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사전의 뜻풀이와 거기에 인용된 예 중에서 특이한 예를 찾아 앞의 기술과 비교한다.

먼저 국립국어연구원(1999)에서 ‘시키다’의 뜻과 기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여기에서는 ‘시키다’를 2개의 표제어로 나누어 ‘시키다1’과 ‘시키다2’로 구별하고 있다.<sup>4)</sup> ‘시키다1’의 의미는 다시 둘로 나누어, 하나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로 풀이하였고 다른 하나는

4) 『조선말사전』에는 ‘시키-’를 타동사로 규정하고 두 가지로 풀이하였는데, 하나는 “(무엇을) 하게 하다.”로 다른 하나는 “(접미사적으로, 동사 어근으로 되는 일부 명사에 붙어) 사역의 뜻을 가진 동사를 만든다.”고 하였다. 『조선말큰사전』에서도 이와 대동소이하게 풀이하고 있다.

“음식 따위를 만들어 오거나 가지고 오도록 주문하다.”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시키다2’는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시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풀이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분류한 것으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를 들 수 있다. ‘시키다’의 표제어를 ‘시키다1’과 ‘시키다2’로 나누었고 ‘시키다1’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 행동을, 또는 사람이 일어나 행동을 어찌하게) 하게 하다.”와 “(사람이 음식점이나 그 상점의 관계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오거나 가지고 오도록 주문을 하다.”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시키다2’는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과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을 이루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로 나누어 풀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시키다’를 한 표제어 아래에서 뜻풀이를 하고 있다. 먼저 “(남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다. (말이나 이야기 등을) 하게 하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와 “(누구를) 어떠한 직위에 있게 하다. (어떠한 행위 등을) 하게 하다.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되게 하다. (무엇이) 되게 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다.”로 각각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키-’의 접미사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시키다1’의 풀이를 보기로 하자.

5. 가) [...에/에게 ...을]

인부에게 일을 시키다.

감사과에 각 과의 감사를 시키다.

선생님은 지각한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셨다.

나) [...에/에게 -게/도록]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편하게 모시도록 시켰다.  
일꾼들에게 담을 대충대충 쌓지 말고 제대로 쌓도록 시켰다.

다) [...에/에게 -고]

그는 부하들에게 집 주변을 빈틈없이 수색하라고 시켰다.  
그들은 나쁜 짓을 하라고 시켜도 못할 순박한 사람들이다.  
돼지 죽통에 무얼 좀 주라고 시켜야겠다고 하면서도 《한수산, 유민》

라) [...을 ...을]

아버지는 자식들을 험한 농장일을 시키면서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마) [...을 -게/도록]

선생님은 아이들을 청소를 하게 시키고 퇴근하셨다.  
사장은 직원들을 일정량의 회사 상품을 나가서 팔도록 시켰다.

바) [...을 -고]

유괴범은 아이의 부모를 지정된 장소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시켰다.  
감독은 선수들을 운동장을 해 질 때까지 뛰라고 시키고는 자리를 떠났다.

(5가)의 예문은 'NP1이 NP2에게 NP3를 시키-'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이때의 NP1과 NP2는 유정물 명사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다.<sup>5)</sup> 이와 같은 구조와 제약은 (5라)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5가)와 (5라)의 차이는 'NP2에게'와 'NP2를'에 있을 뿐 그 의미는 동일하다. 즉, '인부에게 일을 시키다'를 '인부를 일을 시키다'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5나)는 'NP1이 NP2에게 V-도록 시키-'란 문장 구조를 가지고, NP1과 NP2는 유정물 명사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것으로 (5마)가 있는데 이 역시 'NP2에게'와 'NP2를'의 차이일

---

5) NP1과 NP2가 유정물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5가)의 '감사과'는 유정명사가 아니지만 '감사과에 근무하는 누구에게'란 의미로 해석되므로 '감사과에 …… 시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뿐이므로 동일한 구조의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즉, (5마)의 ‘직원 들을’을 ‘직원들에게’로 바꾸어도 괜찮은 것이다. (5다)는 ‘NP1이 NP2에게 V-라고 시키-’란 구조이고,<sup>6)</sup> 역시 NP1과 NP2는 유정물이란 제약이 있는 것이다. (5바)는 (5다)의 ‘NP2에게’를 ‘NP2를’로 대체한 점에서 (5다)와 다를 뿐이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5)는 (5가)-(5라), (5나)-(5마), (5다)-(5바)의 셋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제 (5나)와 (5다)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5나)는 ‘NP1이 NP2에게 [NP2가 V-]{-도록, -게} 시키-’와 같이 그 기저를 상정할 수 있고, (5다)는 ‘NP1이 NP2에게 [NP2가 V-]라고 시키-’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이 둘은 내포문의 어미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미 ‘-게, -도록’과 어미 ‘-라고’를 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도 즉, ‘모시도록 시켰다’를 ‘모시라고 시켰다’로, ‘수색하라고 시켰다’를 ‘수색하{-게, -도록} 시켰다’로 바꾸어도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5나), (5다), (5마), (5바)는 하나의 구조로 표시할 수 있다.

결국, (5)의 예문은 ‘NP1이 NP2{를, 에게} NP3를 시키-’란 구조와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도록, -게, -라고} 시키-’란 구조로 단순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국어의 말뭉치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찾을 수 있다.

6. 가) 반장을 시켜 전달하도록 하였다.
- 나) 의사를 시켜 진찰케 하였다.
- 다) 사무원을 시켜 여관을 잡아 주라고 하였다.
- 라) 영희를 담임을 시켰다.

6) ‘-라고’로 표기해야겠지만 ‘-게, -도록’을 고려해 이하에서는 ‘-라고’로 표시한다.

(6가)의 문장은 '(누가) 반장을 시켜 (반장이) (무엇을) (누구에게) 전달 하도록 하였다'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정리하면 'NP1이 NP2를 시켜 [NP2가 V-]{-게, -도록, -라고} 하-'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다.<sup>7)</sup> (6나-다)의 문장 구조도 (6가)와 같이 파악된다. (6라)는 '(누가) 영희{를, 에게} 담임을 시키-'로 파악되므로, 문장 구조는 'NP1이 NP2(를, 에게) NP3를 시키-'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sup>8)</sup>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시키다1'에 대한 뜻풀이 중 다른 하나는 “음식 따위를 만들어 오거나 가지고 오도록 주문하다.”인데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 가) 분식집에 식사를 시키다.
  - 나) 다방 종업원에게 커피 한 잔을 시키다.
  - 다) 어머니는 중국집에 자장면 두 그릇을 시키셨다.
  - 라) 그녀는 종업원에게 맥주 두 병과 안주 하나를 시켰다.

(7)의 문장 구조는 'NP1이 NP2{에, 에게} NP3를 시키-'로서, (5)의 'NP1이 NP2{를, 에게} NP3를 시키-'와 비슷하다. 'NP2{에, 에게}'와 'NP2{을, 에게}'가 다를 뿐이지만, 후자가 'NP1이 [NP2가 NP3를 하-]-게

7) (6가)를 '반장에게 (반장이) 전달하도록 시키-'로 바꾸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게, -도록, -라고} 시키-'의 변형(變形)으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NP1이 NP2를 시켜 [NP2가 V-]{-게, -도록, -라고} 하-'의 구조와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게, -도록, -라고} 시키-'의 구조 중에서 전자가 기저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는 구조 면에서 다르므로 따로 분류한다.

8) 문장 구조 면에서는 그러하지만, 의미면에서 (6라)는 '(누가) 영희가 담임을 하게 하-' 또는 '(누가) 영희가 담임이 되게 하-'의 의미를 지니므로 (5가)의 '인부에게 일을 시키-'란 문장의 의미와 다른 점이 있다. '(누가) 인부가 일이 되게 하-'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로 대체될 수 있음에 반해 전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누가 [분식집이 식사를 하-]게 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시키다1'의 문장 구조는 다음 (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8가-나)는 대동소이하지만 이들과 (8다) 그리고 (8라)는 다름을 지적하여 둔다.

- 8. 가) NP1이 NP2(를, 에게) NP3를 시키-
- 나)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도록, -게, -라고} 시키-<sup>9)</sup>
- 다) NP1이 NP2(를, 에게) 시켜 [NP2가 V-]게 하-
- 라) NP1이 NP2(에, 에게) NP3를 시키-

그런데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시키다1'에 해당하는 예문을, 현대 한국어의 동사 구문을 분석하고 정리한 사전인 홍재성외(1996)에서 더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키다'를 '자동사, 타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 각각 6개의 구문을 보이고 있다.<sup>10)</sup> 여기에 실린 예문 중에는 (8)의 구조를 만족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제시한 구조와 한 예문씩만 간략하게 보이던 아래와 같다.<sup>11)</sup> 먼저 '자동사, 타동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9)를 제시하고 있다.

- 9. 가) N0 N1-을 시키-: 동생이 내 딸 목욕을 시켰다.
- 나-1) N0 N2-(에게+을) N1-을 시키-: 영화가 자꾸 말을 시켰다.
- 나-2) N0 N2-(에게+을) S1-(고+게) 시키-: 반장은 학생들에게 청소를

9) 앞으로는 '{-도록, -게, -라고}'를 '-게'로 줄여 서술하기로 한다.

10) '시키다(자,타)'와 '시키다(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후자의 예인 '연결을 시키다' 등으로 보면 '연결시키다, 연결하다'의 의미를 지닌 것을 따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후술 참조.

11) (9)의 구조는 홍재성외(1996)에 제시된 대로 인용한 것이다.(이하 같다.) 그리고 예문은 구조 분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줄여서 인용한다.

하라고 시켰다.

다-1) N0 N2-(에+에게) N1-을 시키-: 영화는 우동을 시켰다.

다-2) N0 N2-(에+에게) S1-(고+게) 시키-: 분식집에 순두부를 가져오  
라고 시켰다.

라) N0 N2-을 N1-을 시키-: 영화는 부모님들을 걱정을 시켰다.

마) N0 N3-에게 N2-을 N1-을 시키-: 민수는 내게 자기 동생을 인사를  
시켰다.

바) N0 N2i-을 N3j-와 (서로) N1-을 시키-<sup>12)</sup>: 영화를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

먼저 (9나)를 보자. (9나-1)은 (8가)의 구조에 해당하고 (9나-2)는 (8나)의 구조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9다)의 구조도 (8라)의 구조와 동일하다. (9라)의 구조도 (8가)의 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9마)는 'NP1이 NP2{를, 에게} NP3{를, 에게} NP4를 시키-'로 구조화할 수 있으므로 (8)의 구조와 다른 구조가 된다. (9바)는 'NP1이 NP2를 NP3와 NP4를 시키-'로 구조화되므로 조사를 제외하면 (9마)와 같은 구조가 된다. 즉 (9마)의 예문을 '민수는 나를 자기 동생과 인사를 시켰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 (9바)의 경우 "↔ N0 N2i-와 N2j-을 (서로) N1-을 시키- [대칭]"이란 설명이 뒤에 추가되어 있으니 'NP1이 NP2와 NP3를 NP4를 시키-'란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을 (9마)에 적용하면 (9마)도 역시 'NP1이 NP2와 NP3를 NP4를 시키-'의 구조가 되므로 이 둘은 하나의 구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NP1이 NP2{를, 에게} NP3{에게, 와} NP4를 시키-'와 같을 것이다.

이제 (9가)의 예문을 보자. (9가)는 얼핏 (8가)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12) "↔ N0 N2i-와 N2j-을 (서로) N1-을 시키- [대칭]"이 뒤에 추가되어 있다.

보이지만 ‘NP1이 NP2(의) NP3(=목욕)를 시키-’로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다. 또 현대한국어 말뭉치에서 인용한 다음 예문 (10)도 또 다른 구조로 분석된다.<sup>13)</sup>

10. 연희는 내게 자기 딸의 목욕을 시켰다.

즉, ‘NP1이 NP2{를, 에게} NP3(의) NP4(=목욕)를 시키-’로 구조화할 수 있으므로 (8)이나 (9마-바)의 ‘NP1이 NP2{를, 에게} NP3{에게, 와} NP4를 시키-’의 구조와 다른 것이다.

이제, 홍재성외(1996)에서 ‘시키-’를 ‘타동사’로 분류한 것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1. N0 W Npr1-을 시키-

12. 가) 연결을 시키-, 단일화를 시키-, 환기를 시키-, 배치를 시키-, 제외를 시키-, 격리를 시키-, 분리를 시키-

나) 진출을 시키-

다) 교육을 시키-

거기에는 (11)의 구조를 먼저 제시한 후 모두 6 종류의 예문을 보이고 있다. 이 예문에 사용된 것을 발췌하여 보이면 (12)과 같은데, “공병 부대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을 시켰다.”의 예문에서 그 구조를 도출해 보면 ‘NP1이 NP2(를, 에게) NP3을 시키-’와 같은 구조(11을 참조)가 되므로 (8가)의 구조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있다. 홍재성외(1996)에서 (12가)의 예로 “보건 당국은 콜레라 환자들을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켰다.(=격리하

13) 자료는 <http://gensum.kaist.ac.kr/kcp/>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예를 발췌하여 사용한다.

다)라고 하여 ‘격리를 시키다’를 ‘격리하다’와 같은 구조, 같은 의미로 파악한 것이다. ‘연결, 단일화, 환기, 교육, 배치, 제외, 분리’의 경우도 이와 같으므로 ‘N을 시키-’는 ‘N을 하-’ 또는 ‘N시키-’를 대개로 하여 ‘N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하-’를 ‘시키-’로 오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시키-’의 문법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한편, (12나)의 예인 “감독이 배구팀을 본선에 진출을 시켰다.”에서 ‘진출을 시키-’를 ‘진출하게 하-’ 또는 ‘진출시키-’로 대체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진출하-’로 대체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구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점이 (12가)와 (12나)의 차이인 것이다.<sup>14)</sup> 또 (12다)의 ‘교육을 시키-’는 구조면에서는 (12가)와 동일하지만 의미면에서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따로 분류한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국어연구원(1999)에는 접미사 ‘-시키-’를 따로 언급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뜻풀이 중 ‘시키다’는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풀이되어 있다.<sup>15)</sup> 그리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에서는 접미사 ‘-시키-’를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과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을 이루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로 세분하여 뜻풀이를 하고 있다.

먼저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예를 보기로 하자.<sup>16)</sup>

14) 홍채성외(1996)의 예에서 ‘시키-’를 접미사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5) 이 접미사가 ‘사동의 뜻을 더하는’ 기능과 ‘동사를 만드는’ 기능 중 후자에 초점이 있는지 아니면 두 기능을 모두 가진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후술되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에서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16) 국립국어연구원(1999)에는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싣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어휘들을 표제어 항목으로 등재하지도 않고 있다. ‘시키다’를 포함한 어휘로 ‘안다미시키다,

13. 가) 등록시키다, 복직시키다, 이해시키다, 입원시키다, 진정시키다, 짐참  
시키다, 취소시키다, 화해시키다  
나) 교육시키다, 오염시키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서는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13가)의 ‘등록시키다’의 경우 ‘형이 동생을 대학에 등록시켰다.’와 같은 예문을 상정할 수 있다. (13가)의 ‘복직’을 비롯한 다른 어휘들의 경우도 동일한 구조의 문장으로 파악된다.<sup>17)</sup> ‘형이 동생을 대학에 등록시켰다.’의 경우 ‘형이 [동생이 대학에 등록하-]-도록 하였다.’란 의미와 ‘형이 [동생이 대학에 등록되-]-도록 하였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동생이 등록하게 만든 것이고 후자는 형이 직접 등록한 것이 된다. 후자의 경우 ‘등록하-’로 대체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에서 보이고 있다. (13나) ‘교육시키다’의 예문을 ‘누나가 동생을 교육시켰다.’라 할 때, ‘누나가 [동생이 교육하-]-도록 하였다.’란 의미로 파악되기보다는 ‘누나가 [동생이 교육되-]-도록 하였다.’ 또는 ‘누나가 [동생이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란 의미로 파악된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염시키다’ 정도이다. 이런 점 때문에 본고에서는 (13가)와 (13나)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13)의 문장의 구조는 ‘NP1이 NP2를 N시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의 뜻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앞의 뜻풀이(“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의 예로 ‘긴장시키다, 공부시키다, 복종시키다, 안정시키다’를 들고 있는데 그 예문의 하나로 ‘시험이 우리를 긴장시킨다.’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험

짓시키다’만 등재되어 있다.

17) (13)은 다시 ‘교육을 시키다, 등록을 시키다, 복직을 시키다’ 등과 같이 구(句)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그러면 (12)와 같은 ‘NP1이 NP2(를, 에게) NP3을 시키-’와 같은 구조가 되므로 (8가)의 구조에 해당한다.

이 [우리가 긴장하-]-도록 한다.'와 '시험이 [우리가 긴장되-]-도록 한다.'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편<sup>18)</sup> “\*시험이 우리를 긴장하다’로 바꿀 수는 없다. 이는 (13가)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 뜻풀이(“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을 이루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의 예인 ‘금지시키다, 불식시키다, 약화시키다’의 예문 중 하나로 ‘사회 혼란이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 혼란이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하였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일 뿐, “\*사회 혼란이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하-]-게 하였다.’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는 (13나)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자의 뜻풀이나 후자의 뜻풀이에서 문장 구조를 상정해 보면 (13)과 같은 ‘NP1이 NP2를 N시키-’가 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분류하고 정리하면 ‘시키-’ 문장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sup>19)</sup>

- 14. 가) NP1이 NP2(를, 에게) NP3를 시키- (=8가)
- 나)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 -게 시키- (=8나)
- 다) NP1이 NP2(를, 에게) 시켜 [NP2가 V-] -게 하- (=8다)

18) 앞의 뜻풀이는 전자의 해석만을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은 후자의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19) 각각의 예문을 하나씩 들면 아래와 같다. (14)의 구조는 IV 결론에서 더 단순하게 분류된다.

- (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켰다.
- (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모시도록 시켰다. ↔ 아버지는 아들을 시켜 할아버지를 모시도록 했다.
- (다) 어머니는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켰다.
- (라) 민수는 내게 자기 동생을 인사를 시켰다.
- (마) 연희는 내게 자기 딸의 목욕을 시켰다.
- (바) 형이 동생을 대학에 등록시켰다.

- 라) NP1이 NP2{에, 에게} NP3를 시키- (=8라)
- 마) NP1이 NP2{를, 에게} NP3{에게, 와} NP4를 시키-
- 바) NP1이 NP2{를, 에게} NP3(의) NP4를 시키-
- 사) NP1이 NP2를 N시키-

### Ⅲ. ‘시키-’의 의미

2장의 논의는 사전에서 풀이한 의미에서 비롯하였고 이를 사전과 말뭉치에서 보완하면서 그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시키-’의 의미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의 ‘시키-’가 사전에서 풀이한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여러 구조를 가지는 ‘시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시키-’의 의미를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거론한 사전의 뜻풀이와 예문에서 그 의미를 검증하기로 한다. 의미를 검증하는 방법은 각 예문의 ‘시키-’를 여러 어휘나 요소 또는 구성으로 대체해 보는 한편, 전술한 구조에서 구성 요소의 통사 자질을 분석하는 과정도 병행하기로 한다.

먼저 국립국어연구원(1999)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란 의미로 풀이한 예의 일부를 보이면 아래 (15)와 같다.

15. 가) 인부에게 일을 시키다.

나) 선생님은 지각한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셨다.

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험한 농장일을 시키면서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15)의 '시키-' 자리에 사전에서 풀이한 '하게 하-'를 대체해 보자. (15가-다)의 예문에서 '시키-'를 '하게 하-'로 대체하면, '인부에게 일을 하게 하다, 청소를 하게 하다, 농장일을 하게 하면서'와 같이 된다. 이때의 구조 'NP1이 [NP2가 NP3를 하-]게 하-'는 (14가)의 구조와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문장의 의미도 서로 다르지 않다.

(15)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16)에 있다.

- 16. 가) 민수는 내게 자기 동생을 인사를 시켰다.
- 나) 순희를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

(16)은 (15)와 문장 구조가 다르다. 즉 (16)의 문장 구조는 (14마) 'NP1이 NP2{를, 에게} NP3{에게, 와} NP4를 시키-'이다. 그렇지만 '순희를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게 하였다.'와 같이 (16)의 '시키-'에 '하게 하-'를 대체할 수 있음은 (15)와 동일하다. '[순희가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게 하였다.'에서도 그러하다.

(17)도 '하게 하-'의 의미로 해석될 법한 예들이다.

- 17. 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편하게 모시도록 시켰다.
- 나) 그는 부하들에게 집 주변을 빈틈없이 수색하라고 시켰다.
- 다) 일꾼들에게 담을 대충대충 쌓지 말고 제대로 쌓도록 시켰다.
- 라) 선생님은 아이들을 청소를 하게 시키고 퇴근하셨다.

하지만 (17)의 '시키-'를 '하게 하-'로 대체하면 의미 면에서 매우 어색하지만 그 대신에 '하-'로 대체하면 매우 자연스럽다. 즉 (17가-다)에서 '모시도록 하게 하였다, 수색하라고 하게 하였다, 제대로 쌓도록 하게 하였다' 보다는 '모시도록 하였다, 수색하라고 하였다, 제대로 쌓도록 하였다'가 더욱 자연스러운 것이다.<sup>20)</sup> (17라)의 경우에도 '하게 하-'로 대체한 \*청소를

하게 하게 하고’는 비문이지만 ‘하-’로 대체한 ‘청소를 하게 하고’는 적격 한 구조가 된다. 이번에는 (17)의 ‘시키-’ 자리를 ‘만들-’로 대체해 보기로 하자. ‘모시도록 만들었다, 수색하라고 만들었다, 쌓도록 만들었다, 청소를 하게 만들고’에서 보듯이 ‘시키-’는 ‘만들-’로 대체해도 무방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시키-’를 ‘지시하-’로 대체하여도 좋을 것이다.<sup>21)</sup> (17)의 문장 구조는 (14나)의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 -게 시키-’가 되는데, 이상의 논의에서 ‘시키-’에 대체되는 것으로 ‘하-’, ‘만들-’, ‘지시하-’가 있음을 알게 된다.<sup>22)</sup>

(14가)의 구조를 가진 다음 (18)의 예문을 보자.

18. 가) 누나가 철수를 공부를 시켰다.  
 나) 교장이 영희를 담임을 시켰다.  
 다) 누나가 철수를 교육을 시켰다.

(18가-나)는 (15)와 구조가 같고 ‘시키-’에 ‘하게 하-’를 대체하면 의미도 동일하므로 (15)와 같아 보인다.<sup>23)</sup> (18다)는 일견 (18가-나)와 그 구조

20) 이러한 예로 다음을 더 들 수 있다.

- 가) 그들은 나쁜 짓을 하라고 시켜도 못할 순박한 사람들이다.  
 나) 사장은 직원들을 일정량의 회사 상품을 나가서 팔도록 시켰다.  
 다) 유괴범은 아이의 부모를 지정된 장소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시켰다.  
 라) 감독은 선수들을 운동장을 해 질 때까지 뛰라고 시키고는 자리를 떠났다.

21) 심사자 중 한 분이 ‘지시하-, 지령하-’로 대체해도 좋을 것이란 의견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2) ‘시키-’에 대체되는 ‘하-’는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동사 ‘하-’이고 둘째는 ‘시키-’의 대동사이며 셋째는 ‘하-’가 사용될 자리에 잘못 사용된 ‘시키-’이다. ‘시키-’의 대동사로 해석될 여지가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보한다. (17라)의 ‘청소를 하게 시키고’란 구조의 적격성도 이런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3) 다음의 예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가) 순희는 부모님들을 걱정을 시켰다.  
 나) 감사과에 각 과의 감사를 시키다.

가 같아 보이지만, (18다)의 '시키-'를 '하게 하-'나 '하-', '만들-'로 대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게 하-'로 '시키-'를 대체하면 '누나가 철수를 교육을 하게 하였다.' 즉, '누나가 [철수가 교육을 하-]게 하였다.'가 되는데 의미가 본래의 의미와 다르다. 또 '시키-'를 '하-'나 '만들-'로 대체하여도 (18다)의 의미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18가-나)와는 다른 의미의 '시키-'라고 보아야 한다. (18다)은 '누나가 [철수가 교육을 받-]게 하였다.'로 해석될 것이므로 '시키-'에 대체될 것은 '받게 하-'로 볼 수 있다. (18다)의 예문에서 '시키-'의 의미 '받게 하-'를 찾을 수 있다.<sup>24)</sup>

(19)의 예는 위의 예들과 많이 다르다.

19. 가) 분식집에 식사를 시키다.

나) 다방 종업원에게 커피 한 잔을 시키다.

(19가-나)의 '시키-'는 앞의 의미와는 아주 다른 '주문하-'의 뜻이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음식 따위를 만들어 오거나 가지고 오도록 주문하다.”란 뜻풀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구조가 (14다) 'NP1이 NP2(에, 에게) NP3를 시키-'인 (19가-나)의 '시키-'를 '주문하-'로 대체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sup>25)</sup>

다음 (20)의 예문에서 '시키-'의 의미를 규정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

20. 가) 동생이 내 딸 목욕을 시켰다.

---

다) 순희가 자꾸 말을 시켰다.

24) (18다)의 이러한 특수성은 '교육'이나 '오염'이란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25) 아래의 예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가) 어머니는 중국집에 자장면 두 그릇을 시켰다.

나) 그녀는 종업원에게 맥주 두 병과 안주 하나를 시켰다.

다) 영희는 우동을 시켰다.

나) 연희는 내게 자기 딸의 목욕을 시켰다.

(20가)의 ‘시키-’에 대해 ‘하-, 만들-, 주문하-’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반면에 ‘동생이 내 딸 목욕을 하게 하였다.’처럼 ‘(하)게 하-’를 대체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가)는 ‘동생이 내 딸의 목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어서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데 비해 ‘하게 하-’로 대체된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없어서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갖게 되므로 ‘하게 하-’로 대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시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기는 쉽지 않다. (20가)에서 ‘목욕을 시키-’는 ‘몸을 씻기-’의 의미에 해당한다.<sup>26)</sup> (20나)의 ‘시키-’에 ‘하게 하-’를 대체해 보면 ‘연희는 내게 자기 딸의 목욕을 하게 하였다.’가 되어 역시 어색하거나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된다. 그 외에 ‘하-, 만들-’ 등을 대체하여도 역시 그러하다. ‘NP1이 NP2(의) NP3를 시키-’인 (20가)에서 ‘목욕을 시키-’가 ‘몸을 씻기-’로 해석된다면 ‘NP1이 NP2{를, 에게} NP3(의) NP4를 시키-’인 (20나)에서 ‘목욕을 시키-’는 ‘[몸을 씻기-]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가-나)의 문장이 문법적인 문장이라면, ‘목욕을’을 앞세운 ‘시키-’는 ‘(몸을 씻기-’ 또는 ‘(몸을 씻기)게 하-’란 두 가지 특이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의 ‘시키-’도 그 의미를 찾아서 기술하기 쉽지 않은 예이다.

21. 가) 반장을 시켜 전달하도록 하였다.

나) 의사를 시켜 진찰케 하였다.

다) 사무원을 시켜 여관을 잡아 주라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시키-’를 ‘(하)게 하-, 하-, 만들-, 주문하-’ 등으

26) ‘목욕을 시키-’의 이러한 특수성은 ‘목욕’이란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로 대체해 보아도 구조와 의미 면에서 합치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굳이 의미에 의존한다면 '반장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였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키-'는 '~로 하여금'이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sup>27)</sup> 그렇지만 아직도 '시키-'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나 혹 '부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반장을 부려, 의사를 부려, 사무원을 부려'가 될 것이다. 한편, (21가)를 예로 들면 (21가)는 '반장이 전달하도록 시켰다'로 변형이 된다. 이런 경우라면 '시키-'는 '하-'로 대체가 될 법하다.

홍재성의(1996)에서 '시키다'를 타동사로 분류하고 그 구조를 “N0 W Npr1-을 V”라고 한 후 6가지로 이를 예시했다. 이를 발췌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2. 가) 연결을 시키-, 단일화를 시키-, 환기를 시키-, 제외를 시키-, 격리를 시키-, 분리를 시키-, 배치를 시키-
- 나) 진출을 시키-
- 다) 교육을 시키-

(22가)의 '연결을 시키-'의 예문은 '공병 부대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을 시켰다.'인데 이 예문의 '연결을 시키-'는 '연결을 하-'로 또는 '연결하-'로 대체하여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을 하게 하-'로는 바꾸어 쓸 수 없다. '단일화를 시키-, 환기를 시키-'도 이와 같다. 또 '제외를 시키-'의 의미는 “수사 반장은 …… 학생들을 제외를 시켰다.”란 예문으로 보아 두 가지로 해석될 법하다. '제외하게 하-'와 '제외하-'가 그것이다. 전자는 '수사 반장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학생을 제외하게 하-'의 의미일 것이고 후자는

27) '하여금'과 관련하여 '시키-'(>시키-)를 '하-'의 사동형인 '히-' 또는 '히여'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리를 달리하여 논할 예정이다.

자신이 제외하는 의미일 것인데 여기서는 후자로 해석하는 듯하다. 이런 해석은 홍재성외(1996)에서 “보건 당국은 콜레라 환자들을 일반 사람들로 부터 격리를 시켰다.(=격리하다)”라 하여 ‘격리를 시키-’가 괄호 속의 ‘격리하-’와 의미가 동일하고 그 구조도 변하지 않음을 보인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분리를 시키-, 배치를 시키-’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22가)의 ‘시키-’의 의미는 ‘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22나)의 예문은 “감독이 배구팀을 본선에 진출을 시켰다.”인데 여기의 ‘시키-’는 ‘하게 하-’로 대체될 수 있으나 ‘진출하-’로 대체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출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위 문장의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시키-’는 ‘하게 하-’의 뜻으로 이해된다.

(22다)의 예문은 “한 안기부 직원이 …… 여행자들-(에게+을) 소양 교육을 시켰다.”인데 여기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하-’ 또는 ‘교육하-’로 대체될 수 있으나 ‘교육하게 하-’로 바꿀 수는 없다.<sup>28)</sup> 이런 점에서 (22가)와 같은 의미가 된다. 그러나 예문 (13)에서 보았듯이 ‘교육을 시키-’의 ‘시키-’에는 ‘(반)-게 하-’의 의미가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23)의 ‘교육 시키-’가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뜻풀이 중에서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풀이된 예 중 일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sup>29)</sup>

28) ‘교육’ 앞에 ‘소양’을 첨가할 때 ‘소양 교육을 하-’는 자연스럽게 ‘소양 교육하-’는 조금 어색해 보인다.

29) 국립국어연구원(1999) ‘시키디?’의 항목에는 (23)외에 ‘이해시키다, 입원시키다, 진정시키다, 집합시키다, 취소시키다, 화해시키다’가 더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예문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 어휘 항목으로 등재되지도 않았다.

23. 가) 등록시키다, 복직시키다  
 나) 교육시키다, 오염시키다

(23가)의 ‘-시키-’에 ‘-하게 하-’를 대체해 보면,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풀이처럼 ‘사동의 뜻을 더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등록시키-’를 ‘등록하게 하-’로, ‘복직시키-’를 ‘복직하게 하-’로 대체해 보면 이 둘의 의미는 각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23가)의 ‘-시키-’는 ‘-하게 하-’란 사동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기술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에서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로 풀이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하-’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 ‘형이 동생을 학교에 등록시켰다.’란 예문에서 ‘등록시키-’는 ‘등록하게 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등록하-’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동의 의미는 없고 단순히 “동사를 만드는” 기능만 하는 것이다. 이는 ‘-시키-’가 ‘-하-’를 대신한 오용으로 또는 문법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23나)의 ‘교육시키다, 오염시키다’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교육시키-’를 볼 때 이것을 ‘교육하게 하-’로 대체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누나가 동생을 교육시켰다.”란 예문에서 ‘교육하게 하-’로 대체하면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이때의 ‘교육시키-’는 ‘교육받게 하-’로 대체하여야 의미가 같아질 것이다. 물론 ‘-시키-’는 ‘-게 하-’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지니기는 한다. 또 “오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란 예문에서 ‘오염시키-’는 ‘오염되게 하-’로 대체하면 의미가 같아지므로 이때의 ‘-시키-’는 ‘-게 하-’란 사동의 의미와 함께 ‘되-’의 의미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에서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을 이루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sup>30)</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분석한 ‘시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24)와 같다.

- 24. 가) 하게 하-
- 나) (받-, 되-)게 하-
- 다) 하-, 만들-
- 라) 주문하-
- 마) (몸을 씻-)기-, (몸을 씻기-)게 하-
- 바) 부리-

(24가)와 (24바)는 ‘시키-’가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로 파악되는데, 이에 비해 (24라)는 여기에서 파생되기는 했지만 독립된 의미로 이해되므로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4마)는 (24가)와 (24바)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독특한 예이다.

#### IV. 결론

현대한국어의 어휘 ‘시키-’는 동사의 기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접미사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어사전에서는 접미사로 풀이하고 있으면서 정작 항목으로는 배치하고 있지 못하다. 또 많은 예에서 ‘N하다’로 충분할 것으로 ‘N시키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오용’이라 할 것인지 아니면 ‘문법화’로 해석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

30) ‘시키-’가 ‘되도록 하-’나 ‘받도록 하-’의 의미를 지니는 용례로 ‘감염시키-, 전염시키-, 고갈시키-, 좌천시키-’ 등이 있음을 심사자 중 한 분이 제시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고는 현대한국어에서 '시키-'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려 하였다. 이 과정은 중세 또는 근대의 '히-, 시기-, -게 히-'와 현대의 '시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결과는, 비록 한 어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전을 편찬할 때에 동음이의어로 보고 별개의 표제어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의어로 보고 한 표제어 속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먼저 '시키-'가 사용된 문장의 다양한 구조를 보이면 다음 (25)와 같다. (14)를 다시 가져와서 보인다.

- 25. 가) NP1이 NP2(를, 에게) NP3를 시키-
- 가') NP1이 NP2(를, 에게) [NP2가 NP3를 하-]게 하-
- 나)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게 시키-
- 다) NP1이 NP2(를, 에게) 시켜 [NP2가 V-]게 하-
- 다')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게 시키-
- 라) NP1이 NP2(에, 에게) NP3를 시키-
- 라') NP1이 NP2(에, 에게) [NP2가 NP3를 가져오-]게 하-
- 마) NP1이 NP2(를, 에게) NP3(에게, 와) NP4를 시키-
- 마') NP1이 NP2(를, 에게) [NP2가 NP3(에게, 와) NP4를 하-]게 하-
- 바) NP1이 NP2(를, 에게) NP3(의) NP4를 시키-
- 바') NP1이 NP2(를, 에게) [NP2가 NP3(의) 목욕이 되-]게 하-
- 바'') NP1이 NP2(를, 에게) [NP2가 [NP3가 목욕이 되-]게 하-
- 사) NP1이 NP2를 N시키-
- 사') NP1이 NP2를 [NP2가 {N하-, N되-}]게 하-

(25가=14가)를 (25가')처럼 구조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5나=14나)와 구조가 동일하게 된다. (25다=14다)와 (25마=14마)도 (25다')와 (25

마)로 구조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25나)와 같은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면 (25가, 나, 다, 마)는 하나의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25라=14라)는 (14라)로 구조화할 수 있는데 내포문의 서술어가 ‘가져오-’ 정도의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앞과 다르다. (25바=14바) (25바) 또는 (25바”)로 구조화되는데 아마 후자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 (25사=14사)도 (25사’)로 구조화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26)에서 보듯이 4개의 구조로 정리가 될 것이다.

26. 가) NP1이 NP2{를, 에게} [NP2가 V-]-게 시키-  
 나) NP1이 NP2{에, 에게} NP3를 시키- = NP1이 NP2{에, 에게} [NP2가 NP3를 가져오-]-게 하-  
 다) NP1이 NP2{를, 에게} NP3(의) NP4를 시키- = NP1이 NP2{를, 에게} [NP2가 [NP3가 목욕이 되-]]-게 하-  
 라) NP1이 NP2를 N시키- = NP1이 NP2를 [NP2가 {N하-, N되-}]-게 하-

‘시키-’의 의미는 (24)와 같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의미들은 (26)의 구조와 연관 지어 보기로 한다.

(26가)의 구조에서 보이는 ‘시키-’는 ‘-게 하-’의 의미를 가지는데 드물게 ‘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26나)의 구조에서 보이는 ‘시키-’는 ‘가져오-’ 또는 ‘주문하-’의 의미로 사용된다. (26다)의 ‘시키-’의 의미는 ‘(몸을 씻-)-기-’ 또는 ‘(몸을 씻기-)-게 하-’의 의미로 파악되는데 역시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6라)의 ‘시키-’는 ‘하-, -게 하-, 되게 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26가)의 구조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누나가 동생을 공부시키다.’(26라)와 ‘누나가 동생을 공부를 시키다.’(26가의 일부)의 ‘시키-’는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p.3819.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p.3801.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1986), 『朝鮮語大辭典』, 角川書店, p.1517.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p.1910.  
신기철·신용철(1986),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p.2075.  
언어문학연구소(1960), 『조선말사전』, 과학원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p.1158.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p.2569.  
홍재성외(1996),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pp.308-311.

### 2. 논문 및 단행본

- 김창섭(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pp.247-267.  
서정수(1986), 「'~게'와 사동법」, 『국어학신연구2』, 탑출판사, pp.170-181.  
서종학(2004), 「차자 '슴是-攷」,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pp.133-155.  
송창선(2010), 『국어 통사론』, 한국문화사.  
송철의(1997), 「파생법의 변화」, 『국어사연구』(국어사연구회), 태학사, pp.841-876.  
柴公也(1992), 「'한자어+시키다'에 대한 연구 - 재귀성·타동성·사역성·수동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최현배(1937/1983),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pp.415-418.  
허철구(1998), 「조어법의 '시키-'에 관한 몇 문제」, 서강어문 14-1.  
허철구(2000), 「'하-'의 形態論的 性格에 대한 토론」, 형태론 2-2, pp.323-331.

<b>Abstract</b>
-----------------

## A Study on 'sik<sup>h</sup>i-'(시킴-) from its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

Suh, Jong-Hak

It is witnessed that '시킴-(sik<sup>h</sup>i-)' is often used as a verb or is sometimes substituted for '하-(ha-)' in a number of modern writings. In this article, sentence structures containing '시킴-' were analyzed and their meaning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various writings and modern dictionaries. The result was that '시킴-' was used as a verb and sometimes was functioned as a suffix. '시킴-' as a verb was found in a variety of sentences and its meaning was a littl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ntences. When '시킴-' was used as a suffix,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시킴-' was misused in place of '하-' or it became a grammaticalized form. In this case, its meaning was also different depending on its root word right in front of '시킴-'.

These findings will be helpful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categorized as a synonym which has a separate entry word or as a polysemy which is placed under the same entry word when it comes to publishing a dictionary. In addition, they will be conducive to our attempt to explain the grammaticalization of a word by looking at the process of a word which is changed into a grammatical element.

Key-words : 'sik<sup>h</sup>i-'(시킴-), structure, meaning, grammaticalization, the compilation of a dictionary

서종학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053-810-3192, 010-9812-1122

전자우편: jhsuh@yumail.ac.kr

이 논문은 2011년 5월 2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